

장수군, 국비 1442억원 확보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 탄력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9억원 확보

2022년도 국가예산 전년도 대비 94억원 증액... 예산 확보 노력 결실

장수군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바탕으로 예산 4,000억원 시대를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1,442억 원을 확보했다.

군에 따르면 2022년도 국가예산은 전년도 대비 94억원(7%) 증가한 1,442억원으로 각종 현안의 신속한 해결과 군 미래발전을 위한 든든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장수군은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예산 확보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영수 군수를 필두로 중앙부처 단계에서부터 10~11월 국회단체까지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 예결소위 이원택 국회의원, 신영대 국회의원, 환노위 윤준병 국회의원, 기재위 정성호 국회의원, 김수홍 국회의원 등을 만나며 수차례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내년도 국가예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장수지구하수관로정비사업(213억원)을 시작으로 ▲선도산림경관단지(75억원) ▲백두대간금남호남정맥생태축복원(58억원) ▲22년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51억원) ▲의림지구하수



장영수 장수군수가 신영대 국회의원을 만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건의했다.

관로정비사업(45억원) 등이다. 이어 ▲스마트그린도시구축사업(44억원) ▲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26억원) ▲조사료유통센터지원사업(13억원) ▲와룡자연휴양림보완사업(12억원) 등이 포함됐다.

도비사업으로는 ▲장수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45억원) ▲전북형보급자리조성사업(36억원) 등을 확보했다.

장영수 군수는 "코로나19 여파에도

각 부처 및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에서부터 국회 심의까지 단계별로 중앙부처와 국회 핵심 관계자들을 찾아가 사업의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하며 신속히 대처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신규사업 발굴과 지속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통해 장수군의 대도약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 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하면서 무주군립요양병원을 비롯해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 10억원과 안성면 둔당마을 진입교량 설치 9억 원이다.

무주군립요양병원 건립은 매년 노인 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는 가운데 치매 환자 비율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나 인접지역에도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이 개설되지 않아 노인대상의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이 미흡한 상태다.

특히 치매 전문치료와 재활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재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전문 의료서비스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

하지만 이번 정부 교부세 확보로 치매전문병동을 포함한 군립요양병원 개설에 탄력을 받게 되면서 노인전문치료와 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

무주를 당산리 일원에 건립될 군립요양병원은 126병상 규모(지하층 지상층)로 2023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둔당마을 진입교량 설치 사업은 안성면 공정리 3개 마을 주민이 둔당마을 안길을 경유하고 있으나, 도로가 매우 협소하고 굴곡이 심해 교통사고 위험과 버스 등 대형차량의 통행불편도 초래하고 있다.

군이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면서 안성면 소재지에서 직접 둔당, 내당, 외당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교량신설 및 접속도로 확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황인홍 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딛고 '무주다운 무주, 행복한 군민'을 실현시키기 위해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 등의 숙원을 해결할 수 있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기자

무주군,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무주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재인증됐다. 군은 지난 9월 10일부터 서류 및 현장심사와 가족친화 경영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최근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오는 2024년 11월까지 가족친화제도 모범 운영 공공기관 자격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이란 자녀의 출산·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최고경영자 인터뷰,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근로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과 기관에 부여되는 제도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

고 있는 기관 및 기업을 발굴·인증해 일과 생활이 균형 잡힌 직장문화 조성하는 취지로 2008년 도입됐다.

인증심사는 한국경영인증원에서 실시하여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을 비롯해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을 심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인증을 한다.

가족친화 인증은 현장 심사와 최고경영자 인터뷰, 재직자 설문조사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선정된다. 군은 이번 재인증으로 2016년 최초 가족친화 인증을 취득한 뒤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해 2024년까지 인증자

격을 유지하게 됐다. 군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아이양육을 위한 유연근무제도, 매주 수요일,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시행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력 증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번 재인증으로 3연속 가족 친화 환경 모범기관 자격을 받게 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노력한 다양한 사직들이 인정을 받아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 선정 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가족친화 경영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와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홍삼 특화발전 기본구상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진안군은 8일 전춘성 군수, 김창열 부군수, 국장 및 관련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홍삼 특화발전 기본구상용역 최종보고회를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용역을 추진한 (재)전북연구원은 진안홍삼 관련 기존 자원과 새로운

가치를 융합한 신성장 동력화 방안으로 ▲홍삼 및 연관산업 트렌드 검토, ▲홍삼관련 R&D, 생산, 유통, 판매, 활용 등 추진현황 분석, ▲홍삼·약초 관련 특화발전 사례분석 및 시사점, ▲홍삼관련 국가, 지자체 육성정책 분석, ▲진안홍삼 발전 비전 및 전략, ▲

전략별 세부과제 및 발굴사업의 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군은 이번 용역을 통해 특용작물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총사업비 60억원 을 국가예산으로 확보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특용작물 산업화 거점 기지화 및 특용작물산업 기술 고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치료만족도 높아

장수군은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진행 하고 있는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이 참여자들의 인지가능 개선을 향상시켜 높은 치료만족도를 나타냈다고 8일 밝혔다.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은 장수군과 장수군한의사회가 2020년 2월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2년째 이어가고 있는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장수군 거주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인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60명을 선정해 관내 지정 한의원에서 한약 및 침구 치료를 실시했다.

한약재는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약재를 우선 사용돼 안전성을 확보 하도록 노력했다.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진행 후 장수군 치매안심센터와 한의사회에서 공동

실시한 결과보고에 따르면 참여 대상자들은 인지가능 평가에서 지남력, 기억력, 구성 능력, 주의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 인지선별검사(CIST) 결과 평균 4.09점이 향상됐으며, 대상자 60명 중 인지가능 유지 및 개선은 51명으로 86.4% 결과를 나타냈다.

이어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점수 17.28점에서 19.36점으로 2.08점 상승해 유의한 인지가능 향상을 보였으며, 노인우울척도(SGDS)는 평균 5.14점에서 4.61점으로 하향해 우울 증상 개선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 참여 대상자 중 84.7%는 치료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평을 받았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이 참여자들의 높은 치료만족도를 나타냈다.

지역 소식통

진안군,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 점검

진안군은 8일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실태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에 나섰다

군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간접지원)은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증대 및 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원 규모는 64개 마을에 총 7억2400만원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공용물품 등의 적정 관리 여부, 방치·타목적 사용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한 사후관리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주민지원사업의 누수 없는 예산 집행과 소득, 복지증진이 집약된 내실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 지원사업 관리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숙이 환경과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찾고,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홍삼한방클러스터 수원서 박람회 참가 홍보

(사)진안군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단장 김경배, 이하 사업단)이 9일부터 12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수원메가쇼 팠도박람회'에 참가해 대한민국 유일 홍삼 특구에서 생산되는 진안홍삼 제품을 홍보한다.

메가쇼 수원 팠도박람회는 '수도권 600만 주부들의 핫플레이스'라는 슬로건으로 생활, 음식, 주방용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소비재 박람회로 250여개사가 참여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소비재 박람회다.

사업단은 박람회를 통해 진안군홍삼연구소 기술이전 제품인 '뽕방젤리'와 '어린이홍삼 쥬리홍', '뽕방쥬스' 등 어린이 홍삼 제품과 진안군수산물인증제품인 '프리미엄홍삼정골드', '진안홍삼플든데이즈',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명인인 송화홍삼 명인 제품'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